

1-1. 기업금융 (DCM Debt Capital Market)

커버리지 1, 2, 3부

Q1 직무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기업금융 DCM 은 회사채, CP, 전단채 발행을 통해 기업의 부채성 자금 조달을 지원해
요. 기업의 부채성 자금 조달은 주로 **공모 회사채 발행**을 통해 이루어지며, 공모 회사채
발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에요.

공모 회사채 발행을 위해서 ① 계약서 작성 ② 기업실사 진행 ③ 증권신고서 작성 및 공
시 ④ 수요예측 진행 ⑤ 채권 상장신청 및 발행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해요. 해당 절차를
통해 발행된 채권은 투자자에게 출고되며,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기업은 채
무상환, 운영자금 등 사전에 공시한 목적에 따라 사용되게 됩니다.

회사채 발행 업무절차



Q2 어떤 파트너와 일하나요?

주요 고객은 누구나 아는 S사, H사, L사 등의 **대기업 집단**이에요. 회사채, CP, 전단채 등
부채성 자금조달과 관련한 상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내 자금팀 또는 재무팀
담당자와 소통할 일이 많습니다.

주니어 PM, Product Manager 의 경우 발행에 수반되는 대다수의 실무를 담당하기 때문
에 대기업 자금팀 또는 재무팀의 실무진과 이메일을 주고 받는 일이 많습니다.

시니어 RM, Relationship Manager 의 경우 영업을 통해 딜을 수입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CFO, 자금팀장, 재무팀장 등 의사결정권자와 대면하는 일이 많습니다.

1-1. 기업금융 (DCM Debt Capital Market)

Q3 업무 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PM 인력들이 업무 중 가장 집중해서 수행해야 하는 것은 **전자공시시스템 Dart 내 증권 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공시**하는 것이에요. 해당 서류는 투자자들이 발행 예정인 회사채에 투자하기 전 회사채의 발행 개요, 공모 방법, 가격 결정방법, 주요 권리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정보의 오기재 및 허위기재는 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시서류 작성 시 DCM 업무 담당자는 꼼꼼하게 기재된 모든 조건을 검토해야 하며, 공시 직전까지 공시 서류를 반복적으로 검수해야 합니다.



Q4 부서에서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나요?

부서 PM의 하루일과는 다음과 같아요.

오전

출근 후 전일자 국고채/회사채 금리 추이 및 DCM 시장 동향을 체크하고, 주요 발행 스케줄을 확인하여 당일 수행해야 할 업무들을 정리합니다. 이후, 고객사 메일 회신, 제안서 작성, 공시서류 작성 등 집중해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합니다.

오후

회사채 공시 관련 업무가 있을 경우, 해당 일정에 맞춰 공시 서류를 작성 후 발행사를 방문하여 공시 업무를 수행합니다. 공시가 아닌 다른 업무를 맡았을 경우, 상황에 맞게 계약서 작성, 실사 보고서 작성, 수요예측 결과 정리 등 발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회사채 공시 관련 업무가 없을 경우, 주로 오전에 수행하던 업무를 이어 수행합니다. 발행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 자료 양식에 맞게 자료 작성 후 회신합니다.

1-1. 기업금융 (DCM_신디케이션 Synd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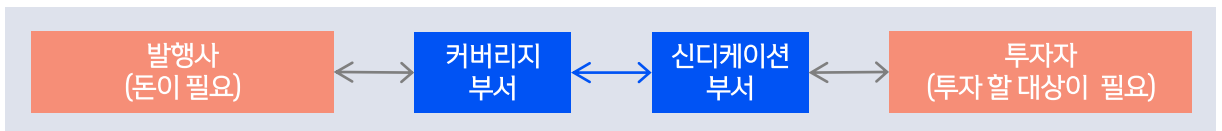
Q1 직무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신디케이션 관련 부서에서는 채권 중개 및 세일즈 업무를 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 S&T 그룹에도 채권 세일즈 부서가 있지만, 신디케이션 부서에서는 타 그룹과 달리 **IB 조직 내에서 인수하거나 만든 상품을 전담**해서 세일즈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예요.

증권사 내 기업금융, 특히 DCM의 주요 비즈니스는 돈이 필요한 기업이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인데, 보통 고객의 확실한 자금 확보를 도와주기 위해 증권사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채권 발행 물량 전액을 인수하고 있어요. 하지만 증권사의 기본은 중개업무 Brokerage 라 가져온 **채권을 오래 보유할 수 없고 최대한 빨리 매각**해야 하는데, 이때 투자자를 모집해서 매각을 주도하는 것이 바로 신디케이션 부서가 하는 일이에요.

기업금융 부서에서 대기업 고객사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채권 발행 Deal을 수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Deal을 가져오면 신디케이션 부서가 나서서 발행사와 투자자를 연결**해, 무사히 발행사가 자금을 모집하고 투자자가 투자를 진행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DCM 업무 흐름도



Q2 어떤 파트너와 일하나요?

대기업 및 계열사를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커버리지 부서들과는 다르게 신디케이션부는 **채권투자가 가능한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영업**하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 같은 대형 연기금부터, 공제회, 시중은행, 자산운용사, 보험사, 증권사는 물론 소액이라도 투자가 가능하다면 일반 법인들도 접촉하고 있어요.

1-1. 기업금융 (DCM_신디케이션 Syndication)

Q3 이런 업무도 처리해요!

세일즈 직무지만 담당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대형 기관들이기 때문에 주니어의 경우 바로 영업을 맡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현재 신디케이션 부서에서는 커버리지 부서의 채권 매각을 도와주는 것 말고도 자체적으로 인수해서 매각하는 채권들이 있는데, 주니어가 들어오게 되면 단기채권 CP, 전자단기사채 혹은 회사채 발행 실무부터 맡아서 시작하게 됩니다.

단기채권의 경우 **계약서 검토, 어음수도** 등의 업무를 맡게 되고 회사채 쪽은 기업공시 사이트인 Dart에 공시하는 **증권신고서 작성과 청약 및 결제업무**부터 배우게 된답니다.

Q4 해당 직무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본인이 채권에 관심이 있고, 직접 영업을 하고 싶다면 우리 회사 내 다양한 채권 세일즈 및 FICC 세일즈부서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IB, 특히 DCM을 위주로 하는 기업금융**을 함께 배워보고 싶다면 다른 세일즈 부서와는 다르게, IB 상품을 직접 세일즈하는 신디케이션 부서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